

## 사회적 배제는 물질주의를 증가시키는가? 소속과 통제의 욕구 및 권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

Does Social Exclusion Increase Materialism?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Need to Belong, the Need for Control, and a Sense of Power

정호림<sup>1</sup> · 권혜빈<sup>2</sup> · 박지영<sup>3†</sup>

Hyorim Chung<sup>1</sup> · Hyebin Kwon<sup>2</sup> · Jiyoung Park<sup>3†</sup>

### Abstract

Materialism can be triggered by various social events. Based on theories on functions of materialistic goal pursui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ocial exclusion evokes desires related to one's identity, resulting in an increase in materialism. Specifically, we predicted that social exclusion would increase the desire for control and belonging, thus leading to higher levels of materialism. Moreov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approach tendency of power, we further predicted that individuals with a higher sense of power would experience greater desires for belonging and control when faced with social exclusion. To examine the hypotheses, we conducted an experiment using 202 Korean women.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exclusi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desire for control, thus increasing materialism. This relationship is stronger for individuals with a high sense of power, and the path from social exclusion to materialism based on the need for control is significant for those with a high sense of power. Although social exclusion increases the need to bel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to belong and materialism is not significant, and its mediating effect was not suppor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Social Exclusion, Materialism, Need to Belong, Need for Control, Sense of Power

### 요약

물질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정체성과 관련된 목표 달성이라고 개념화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물질주의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를 상승시켜 물질주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기반으로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30대 한국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배제는 통제 욕구의 상승을 통해서 물질주의를 상승시켰다. 또, 권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졌으며,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경로는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유의했다. 사회적 배제는 소속의 욕구를 상승시켰으나 소속의 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속의 욕구의 매개 효과도 지지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배제, 물질주의, 소속의 욕구, 통제의 욕구, 권력감

<sup>1</sup> 정호림: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학사과정

<sup>2</sup> 권혜빈: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학사과정

<sup>3†</sup> (교신저자) 박지영: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E-mail: jiyoungpark@duksung.ac.kr / TEL: 02-901-8176

## 1. 서론

물질주의는 돈과 같은 물질을 삶의 주요한 가치이자 물질의 소유를 성공의 주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정도를 뜻한다(Richins & Dawson, 1992). 국내외 연구에서 물질주의는 개인의 안녕감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 Lee, 2019; Dittmar et al., 2014; Park & Park, 2019).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는 정신 건강 뿐 아니라 학업, 대인 관계, 식습관 등 삶의 주요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7; Lee & Chong, 2018). 학자들은 물질주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며, 물질주의의 원인을 파악하고 물질주의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Kasser, 2016).

물질주의는 부모의 양육 방식, 개인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일상의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고 증가되기도 한다(Kasser, 2016; Richins, 2017). 일상적 사건을 통한 물질주의 수준의 활성화는 일시적인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Kasser, 2016). 물질주의가 촉발되면 물질주의와 관계되는 쾌락주의 등 외적 가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내적 가치에 관한 관심은 저하된다(Kasser, 2016). 일상에서 물질주의의 활성화는 자기(self)를 위협하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 & Park, 2019; Richins, 2017).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물질을 구매하고 물질을 통한 일시적인 심리적 회복은 물질주의를 강화한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순환 고리에 놓여 있다(Richins, 2017). 이에, Kasser(2016)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물질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누가 물질주의자인가(Who is materialistic?)가 아닌 언제 물질주의적이 되는가(When are people materialisti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언제 물질주의가 촉발되고 강화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Choi & Lee, 2019; Kim et al., 2017; Lee &

Chong, 2018), 물질주의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몇몇 연구를 통해서 불확실한 자기정체성(Park & Park, 2019),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Shin & Seol, 2022), 인간에 대한 낮은 신뢰(Park et al., 2013) 등이 물질주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들을 통해 자기와 인간에 대한 믿음이 물질주의와 관계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회적 사건이나 경험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자기정체성과 관련된 목표 추구(identity goal pursuit)의 일환으로 보는 이론을 기반으로(Shrum et al., 2013), 사회적 배제 경험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질주의를 정체성 목표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물질주의의 기능은 물질의 추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hrum et al., 2013). 해당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물질을 통한 상징적 소비(symbolic consumption)를 통해 자기와 관련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hrum et al., 2013; 2014). 자기와 관련된 동기인 자기 존중감, 독특성, 소속감, 효능감, 의미와 같은 동기가 발생했을 때, 각 동기와 관련된 물질의 추구하고 획득이 해당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hrum et al., 2013). 예를 들어, 새롭게 이사 간 곳에서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과 관계를 쌓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스포츠팀 상품 구매를 통해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후자의 선택은 물질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Shrum과 동료들은 각각의 심리적 욕구는 상응하는 물질주의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물질을 통해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물질주의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은 자기와 관련된 욕구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에 대한 가치 부여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를 통해 물질주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언제 물질주의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언제, 왜 물질주의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된 정체성과 관련된 소속 및 통제의 욕구가 물질주의를 증

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물질적 가치 추구는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켜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적 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Shrum et al., 2013; Wu et al., 2022; Zhang et al., 2020). 물질주의를 정체성 목표 추구로 규정한 이론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주요 욕구인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Gerber & Wheeler, 2009; Williams, 2007)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요인은 물질주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Park & Park, 2019), 심리적 동기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다중의 심리적 욕구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를 상승시키는 경로는 권력감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기반으로(Keltner et al., 2003)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계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언제 왜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

개인은 집단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원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란 어떠한 상황에서 제외되거나 격리되는 상황으로 의지할 수 있는 타인이나 소속이 부재한 상태를 뜻한다(Baumeister et al., 2005; Williams, 2007). 소속을 통해서 인간은 더 높은 확률의 생존과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속 혹은 배제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er et al., 2003; MacDonald & Leary, 2005).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며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좌절된 욕구

를 충족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면 소속의 욕구가 높아져서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Maner et al., 2007). 사회적 배제는 유능함 및 통제감과 관련된 욕구에도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능함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상징화하는 실용적인 제품 구매를 선호하기도 한다(Park & Kim, 2020).

사회적 배제는 인간 관계와 물질에 대한 믿음이나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DeWall & Richman, 2011).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관계와 관련된 정보에 예민해지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DeWall & Richman, 2011). 이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경험이며(Eisenberger et al., 2003; MacDonald & Leary, 2005),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사람보다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나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인보다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을 갖는 것이 성공의 지표이자 목적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게 된다. 실제로 중국의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소외 경험은 자기 존중감을 하락시키고 이는 물질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Jiang et al., 2015). 약 2,500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외로움과 물질주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 종단 연구에서도 외로움은 물질주의 가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Pieters, 2013). 이와 비슷하게 국내 연구에서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인간 관계보다 물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Park et al.,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고 욕구 좌절에 대응하기 위해 물질주의 수준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2.2. 소속의 욕구의 매개 효과

소속의 욕구란 대인적인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타인으로부터 거절 및 무시를 당한 경험은 외로

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지며(Dewall & Baumeister, 2006; Leary et al, 1995; Loveland et al, 2010), 이는 소속의 욕구를 촉발한다(Williams, 2007). 사회적 배제로 인한 소속의 욕구 증가는 인종, 나이, 성별, 문화와 관계없이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로 인한 소속 욕구의 증가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 우선,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관계 형성이 아닌 물질이 매개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드라마 속 인물들과 동일시하고 드라마 속 인물에게 과몰입하기도 한다(Gabbiadini et al., 2021). 인공 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욕구의 증가로 인해 인공 지능 기술을 더 의인화하며 인공 지능 기술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다(Ruijten et al., 2011). 실제 관계 형성이 아닌 물질을 매개한 방법으로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과의 상호작용보다 비용이 덜 들며 또다시 거절당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DeWall & Richman, 2011) 쉽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이는 물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Pieters, 2013).

또, 사회적 배제로 인한 소속 욕구 증가는 사회적 연결 및 인간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제품의 선호로 이어진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거를 향한 감성을 나타내는 노스탤지어(nostalgia)와 관련된 제품 구매를 선호했다(Loveland et al., 2010).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은 소속감을 느꼈던 과거와 재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며, 이는 노스탤지어와 관련된 제품 선호를 불러 일으켰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소비자는 기계로 만든 제품보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제품을 더 선호하며(Noh et al., 2021), 기계적인 글씨체보다 손 글씨체를 선호하기도 했다(Rim et al., 2021). 인간의 따뜻함이나 인간의 수고를 상징하는 수제품은 충족되지 못한 소속의 욕구를 물질로 충족시킬 방안이 되는 셈이다. 소속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물질의 사용은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물질을 열망하는 물질주의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사회적 배제로 인해 증가한 소속의 욕구가 물질주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하였다.

### 2.3. 통제의 욕구의 매개 효과

소속의 욕구와 더불어 통제의 욕구도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를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통제 욕구란 스스로 행동을 통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이다(Miller 1979).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자 한다(Miller, 1979). 통제 욕구는 심리적 안녕감 및 대인 관계 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hoi & Oh, 2014).

통제감은 자신이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생겨난다(Leotti et al., 2010; Miller, 1979). 사회적 배제는 타인에게 선택받지 못하거나 그룹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개인이 느끼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면 재연결을 위해서 타인의 시선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 제약을 느끼게 된다(Maner et al., 2007). 사회적 배제는 지각된 제약을 증가시키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시키며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을 낮춘다(Park & Kim, 2020; Williams, 2007).

사회적 배제는 통제 욕구의 상승을 통해 물질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제 욕구의 상승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불안정한 느낌(insecure feelings)과 관계되며 개인이 느끼는 불안전감은 물질주의 가치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asser, 2016; Richins, 2017).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개인의 불안전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높은 물질주의 수준과 관계된다(Kasser, 2016).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불안전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회의 규범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했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물질주의 수

준을 높였다(Chang & Arkin, 2002). 국내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가치에 대해 방황했던 경험을 회상했던 참가자들은 정체성과 가치가 확실하다고 느낀 참가자들에 비해 상태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졌다(Park & Park, 2019).

좌절된 통제감은 통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의 선호와 관계된다. Park & Kim(2020)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낮은 통제감이 초래하는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지배력으로 상징화하기 때문에 통제력이 낮은 경우 자신의 노력을 투여하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지배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욕구가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2.4. 권력감의 조절 효과

권력은 개인이 자원이나 처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Keltner et al., 2003)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권력감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 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Anderson et al., 2012). 권력감은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권력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속해서 권력을 표현하거나 권력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며 사람들은 개인이 지닌 능력과 자원에 기반하여 권력감을 지각한다(Anderson et al., 2012).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이 갖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접근 경향성(tendency to approach)이다(Kelner et al., 2003).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보상에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Gruenfeld et al., 2008; Kelner et al., 2003).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물질적 자원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Anderson et al., 2012).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부정적인 결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주변 제약이 상대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으므로 접근 경향성을 지닌다(Keltner et al., 2003). 다소 위험한 행동을 할 때도 풍부한 자원 덕분에 위협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고, 이에 더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Anderson & Galinsky, 2006). 학자들은 권력감을 가졌을 때 보이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권력감은 목표와 관심 대상을 향해 접근 경향을 띠고, 반대로 낮은 권력감은 회피(inhibition)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Keltner et al., 2003).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사회적 배제 상황에 대입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자원을 기반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고자 한다(Narayanan et al., 2013). 반면,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기보다는 행동하지 않는 예방 기제가 촉발되기 때문에(Narayanan et al., 2013; Kelner et al., 2003), 사회적 배제로 인한 심리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덜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권력감이 높을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속의 욕구는 근원적이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후 개인이 느끼는 소속의 욕구 수준은 다르다(Narayanan et al., 2013; Mead & Maner, 2012).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손실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지만(Narayanan et al., 2013)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타인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중단하기도 한다(DeWall & Richman, 2011; Mead & Maner, 2012). 사회적 배제 후 소속의 욕구 수준 및 욕구의 발현 방식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자원에 기반한 권력감 때문일 수 있다.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속감이 높다고 인식한다(Waytz et al., 2015).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Anderson et al., 2012), 자신이 지닌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때도 관계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소외와 권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Narayanan et al., 2013). 이에 권력감이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로 인한 소속의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사회적 배제와 통제 욕구의 관계 또한 권력감이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통제 욕구 역시 근원적인 욕구이지만 개인차가 존재한다(Burger & Cooper, 1979; Leotti et al., 2010). 통제 욕구는 통제를 발휘하는 것이 장려되고 통제 행위가 보상되는 상황에서 발현된다(Leotti et al., 2010).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원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이나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으며,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통제와 관련된 행위가 기대되기도 한다(Magee & Galinsky, 2008).

또, 통제 욕구 기저에는 선택의 기회를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욕망이 깔려 있는데,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인지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통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난다(Iyengar, & Lepper, 2000; Leotti et al., 2010). 권력감은 인지적 자원을 높이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한다.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규제 자원이 증가하여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DeWall et al., 2011),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Anderson et al., 2006).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때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예측과 자신의 풍부한 인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통제 욕구를 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에, 낮은 권력감을 지닌 경우보다 높은 권력감을 지녔을 때 사회적 배제로 인한 통제의 욕구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권력감의 조절 효과와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가 두 개의 심리적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로 가는 경로를 권력감이 조

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권력감이 높을 경우, 낮을 때보다 사회적 배제가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로 가는 경로가 강해질 것이다. 자원의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권력감은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자신이 지닌 물질로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질에 대한 가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상의 가설을 종합하여 연구 모형을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30대 여성이다. 기존 사회적 배제 및 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성별 및 나이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 및 물질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Cross & Madson, 1997). 여성은 자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타인의 거부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더 높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her et al., 2017).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살펴본 조사에서도(Kim, 2007),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서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또, 성별과 나이는 물질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성인 초기의 여성은 물질주의 및 외모주의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질주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Seol et al., 2016).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시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외모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한 비교 및 불만족은 물질주의로 이어졌다(Dittmar, 2005). 물질주의와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성별은 유의한 조절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에게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Dittmar 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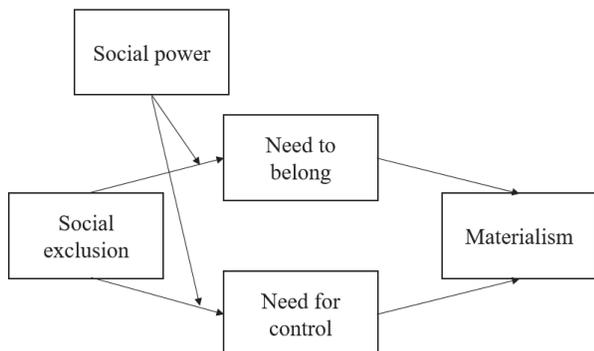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l., 2014). 여성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연령은 물질주의와 정적 관련을 보였다(Dittmar, 2005; Dittmar et al., 2014). 이에,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110명, 사회적 소속 조건에서 110명의 참가자를 수집하였다. “본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를 응답하십시오”와 같은 두 개의 주의 확인 문항에 모두 잘못 응답한 참가자 18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2명의 참가자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9.40세( $SD = 5.06$ )이고, 연령 범위는 만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한다. 참가자들의 학력은 대부분 대학교 학사 졸업(72.77%)이며, 고등학교 졸업은 22.28%, 석사 이상 졸업은 4.95%이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서 모집하였고, 응답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 3.2. 실험 절차

사회적 배제 및 소속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Zhang & Ahn(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사회적 배제 및 포용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20~30대 여성이 쉽게 공감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숙사 상황과 인스타그램 사용 상황을 활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으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조작 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소속 욕구, 통제 욕구, 물질주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일반적인 권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전 필터 문항(filter items)으로 성격 5요인 문항(John & Srivastava, 1999; Kim et al., 2011)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격 5요인 문항을 응답하고 나서 권력감 문항에 응답하고,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3.3. 측정 도구

#### 3.3.1. 사회적 배제

사회적 소속 및 배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소속 조건]

당신은 4인실의 기숙사 방에 입주했습니다. 당신과 3명의 룸메이트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룸메이트들은 고향은 다르지만 당신과 통하는 점이 많아 평소에 자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당신과 룸메이트들은 이번 주말에 근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쉬는 동안 당신은 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당신이 게시한 사진에 댓글을 달며 함께 여행을 했던 즐거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룸메이트들이 먼저 제안하였는데, 당신이 흔쾌히 초대에 수락하여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배제 조건]

당신은 4인실의 기숙사 방에 입주했습니다. 다른 3명의 룸메이트는 모두 같은 고향 출신이고, 당신만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고향이 달라 룸메이트들이 평소에 하는 대화에 끼여들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말 기숙사 방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였는데 당신을 제외한 세 명의 룸메이트들이 근교로 여행을 떠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들끼리 사진에 댓글을 달며 함께 여행을 했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룸메이트들이 당신에게 여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당신만 제외하고 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읽은 후 현재의 생각과 느낌을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사회적 배제 및 소속을 조작한 후 세 개 문항(Jun et al., 2017)을 사용하여 조작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은 “앞서 제시된 상황에서 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가 있다. 리커트식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작 점검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 3.3.2.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

매개 변인에 해당하는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 역시 응답자에게 현재 상태를 답변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속의 욕구는 Jun et al.(2017)가 사용한 문항 세 개를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UCLA loneliness scale (Russell, 1996)의 문항을 차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함께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가 있다. 통제 욕구는 Burger & Cooper(1979)의 The Desirability of Control Scale의 세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사는 사회에서 나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가 있다. 리커트식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소속 연구와 통제 욕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 .90와 .7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 3.3.3.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물질주의 가치 척도(Richins & Dawson, 1992)를 You & Seol(2018)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와 같이(Park & Park, 2019) “지금 이 순간”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생각과 느낌을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물질주의의 가치 척도는 성공 판단, 소유중심, 행복 판단의 세 개 하위요인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공 판단에 해당하는 다섯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공 판단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유의 가치로 개인의 성공을 재단하는 것을 반영한다(Richins & Dawson, 1992). 소유의 가치는 지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Campbell, 1987), 해당 영역은 사회적 소외와 긴밀히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져(Pieters, 2013) 해당 차원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가 있다. 리커트식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였다.

### 3.3.4. 권력감

권력감은 Anderson et al.(2012)이 개발한 8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해서 심리학 박사가 해당 문항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자이자 권력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학원생이 번안된 문항과 원문항을 비교하였다. 번안한 문항과 원문항 사이의 차이를 두 사람이 조율하여 번안을 완성하였다. 일반적인 권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Anderson et al.(2012)이 제안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를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가 있다. 리커트식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권력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였다.

## 4. 결과

### 4.1. 분석 방법

독립 표본 *t*검증을 통해 사회적 배제 및 소속 여부가 효과적으로 조작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조건에 따른 소속 욕구, 통제 욕구, 물질주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후,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가 매개하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Hayes(2012)의 PROCESS Model 4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번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 및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권력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상호작용 유형은 Aiken & West (1991)의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는 Hayes(2012)의 PROCESS Model 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2. 사회적 배제의 영향

사회적 배제 및 소속은 효과적으로 점화되었다. 사회적 배제 조건의 참가자들은( $M = 5.08$ ,  $SD = 1.25$ )

소속 조건의 참가자들( $M = 1.68, SD = 1.08$ )보다 더 의롭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t(200) = 20.72, p < .001, d = 2.91$ . 추가로, 참가자들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권력감과 연령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권력감은 배제 조건( $M = 4.45, SD = .88$ )과 소속 조건( $M = 4.55, SD = .80$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00) = 89, p = .38, d = .12$ . 즉, 일반적인 권력감은 실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소속 조건에서( $M = 28.69, SD = 4.85$ ) 배제 조건보다( $M = 30.10, SD = 5.19$ ) 낮았다,  $t(200) = 1.99, p = .048, d = .28$ . 연령이 물질주의와 관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Jaspers & Pieters, 2016) 매개, 조절, 매개된 조절 분석 시 연령을 통제하였다.

사회적 배제가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독립 표본  $t$ 검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M = 4.10, SD = 1.50$ ) 소속 조건보다( $M = 2.61, SD = 1.39$ ) 소속 욕구가 높았다,  $t(200) = 7.31, p < .001, d = 1.03$ . 사회적 배제는 통제 욕구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적 배제 조건의 참가자들은( $M = 4.27, SD = 1.16$ ) 소속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M = 3.67, SD = 1.20$ ) 통제 욕구가 높았다,  $t(200) = 3.59, p < .001, d = .51$ .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 및 소속 조건에 따라 물질주의 수준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였다. 예상과 달리, 물질주의는 사회적 배제 조건과( $M = 4.53, SD = 1.09$ ) 소속 조건( $M = 4.41, SD = 1.20$ )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t(200) = .72, p = .474, d = .10$ . 즉, 사회적 배제는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는 상승시켰지만 직접적으로 물질주의에 상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속 조건을 0, 배제 조건을 1로 코딩하였으며, 총 다섯 개의 모델을 통해 매개 효과를 파악하였다. Model 1은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

치는 영향을, Model 2와 3은 사회적 배제가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Model 4에서는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Model 5에서는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나이를 통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Model 1과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 = .15, p = .36$ ). 독립 변인(사회적 배제 및 소속 여부)과 종속 변인(물질주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해당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도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소속 욕구, 통제 욕구)의 관계 및 매개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볼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Gelfand et al., 2009; Hayes, 2009),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1의 Model 2와 3의 결과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소속 욕구와( $b = 1.49, p < .01$ ) 통제 욕구에

Table 1. Mediation analyses

	Materialism			
	<i>b</i>	<i>SE</i>	beta	<i>t</i>
Model 1				
Age	-.02	.02	-.11	-1.54
Social exclusion	.15	.16	.07	.93
Model 2				
Age	.00	.02	.00	.01
Social exclusion	1.49	.21	.46	7.22**
Model 3				
Age	.00	.02	.00	.05
Social exclusion	.60	.17	.25	3.54**
Model 4				
Age	-.02	.02	-.11	-1.60
Need to belong	.05	.06	.06	.80
Need for control	.15	.08	.16	1.98*
Model 5				
Age	-.02	.02	-.11	-1.57
Social exclusion	-.01	.18	.00	-.05
Need to belong	.05	.06	.07	.75
Need for control	.15	.08	.16	1.97*

Note. \* $p < .05$ , \*\* $p < .01$ .

( $b = .60, p < .01$ )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다. Model 4에서 소속 욕구 및 통제 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속 욕구와 물질주의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05, p = .462$ , 통제 욕구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수준은 높아졌다,  $b = .15, p = .049$ . 마지막으로, Model 5에서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가 추가되었을 때,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1, p = .96$ . 모든 모델에서 연령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을 포함할 때나 제외할 때나 결과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소속 욕구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7, SE = .10, 95\% CI [-.11, .27]$ . 따라서, 소속 욕구의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했다,  $b = .09, SE = .06, 95\% CI [.02, .22]$ . 정리하면, 사회적 배제는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였으며,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통제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 상승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 4.4. 권력감의 조절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

사회적 배제와 권력감의 상호작용이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사회적 배제와 권력감의 상호작용은 소속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5, F(1, 198) = .06, p = .808$ . 반면, 가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와 권력감의 상호작용이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확률  $p = .079$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F(1, 198) = 3.11$ . 사회적 배제 여부와 사회적 권력의 상호작용은 통제 욕구 변량의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권력감이 낮을 때는(평균-1SD) 사회적 소속 및 사회적 배제에 따른 통제 욕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8, p = .132, 95\% CI [-.09, .65]$ . 반면, 권력감이 높은 경우(평균+1SD)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소속 조건보다 통제 욕구가 유의하게 높

았다,  $\beta = .76, p < .001, 95\% CI = [.39, 1.13]$ . 즉, 권력감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제 여부에 따라 통제의 욕구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권력감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제가 점화되었을 때 통제 욕구가 증가하였다. 가설과 일관된 상호 작용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상호 작용의 효과 크기가 작고 유의 확률 역시 .079 선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상호 작용 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권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 효과의 전제인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 사이의 조절 효과의 영향력이 소속 욕구를 예측하는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만 권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Hayes(2012)의 PROCESS Model 7을 통해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권력감의 수준이 평균이거나 높을 때만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권력감이 낮을 때 간접 효과는 .05( $SE = .04$ ), 간접 효과의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95\%CI = [-.02, .14]$ )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력감이 평균 수준이거나(간접 효과 = .09,  $SE = .04, 95\% CI = [.02, .19]$ ), 권력감이 높을 때는(간접 효과 = .13,  $SE = .07, 95\% CI = [.03, .28]$ )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 사이에서 통제 욕구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력감이 평균일 때보다 권력감이 높을 때 매개 효과의 크기가 강해졌다. 즉, 사회적 권력감은 사회적 배제와 통제 욕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고, 사회적 권력감이 평균이거나 높은 수준일 때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높여 물질주의에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논의

### 5.1. 의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인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효과 및 권력

감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는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다양한 심리적 욕구 중 주요하게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erber & Wheeler, 2009; Lee et al., 2021; Park & Kim, 2020; Su et al., 2017). 국내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단일한 심리적 욕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예: Kim et al., 2014; Park & Kim, 2020),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다중의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 효과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효과 크기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메타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Gerber & Wheeler, 2009) 및 효능감 욕구(Lee et al., 2021) 미치는 영향력이 소속 욕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속 욕구가 사회적 배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관계를 중요시하는 20~30대 여성 참여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소속 욕구가 통제 욕구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는 성별 혹은 연령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촉발하는 심리적 욕구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속 욕구가 사회적 배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만 지지되었다. 통제 욕구의 좌절은 타인에 대한 지배 혹은 타인보다 더 우위의 자원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데(Leotti et al., 2010; Shrum et al.,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물질주의와 더 긴밀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질을 통한 손쉽고 가시적인 통제감의 회복이 물질에 대한 가치 부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배제와 통제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Kim & Lee, 2019; Park & Kim, 2020) 사회적 배제가 통제와 관련된 특정 물건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통제 욕구가 물질주의 가치 자체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Kim & Li(2019)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관찰하는 것은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속 욕구는 공적 제품에 대한 동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통제 욕구의 증가는 공적 제품에 대한 동조와 관련되었다. 기존 연구 결과 및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통제 욕구가 물건에 대한 선호 및 물질주의 증가에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의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는 Shrum et al.(2013; 2014)이 제안한 바와 같이 물질주의 추구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정체성 수립의 방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Richins(2017)는 아동 및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물질주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해당 이론이 국내 20~30대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른으로서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요즘(Twenge & Park, 2019),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를 벗어난 연령에서도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사건이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 및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20~30대로 해당 연령대에서는 물질주의 중 성공 판단 가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asper & Pieters, 2016). 본 연구를 통해서 20~30대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성공 판단 가치에 기여하는 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사회적 배제와 통제의 욕구 관계에서 권력감의 역할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때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기반으로 통제 욕구가 더 크게 촉발되었다. 하지만 해당 상호작용 효과는 효과 크기가 작고, 유의 확률 .079 선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조절 효과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사회적 배제와 권력감의 상호 작용이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불안과(Maner et al., 2007) 같은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배제와 소속 욕구의 관계는 권력감과 같이 자원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했는지가 아닌 불안과 같이 자원의 부족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나타났는데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서 물질주의로 연결되는 경로가 권력감이 평균이거나 높은 사람들에게 유효했다.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통제 욕구가 물질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은,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바탕으로 통제 욕구를 물질로 손쉽게 채울 수 있으며 이것이 물질주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권력감과 사회적 배제에 대해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배제와 권력감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Park & Kim, 2020),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를 배제를 당한 후에도 자신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호했다. 즉,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라는 개인적 자원 투여를 통해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이것이 물질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배제가 야기하는 통제 욕구와 권력감의 미묘한 역동이 특정 물질에 대한 선호와 물질주의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2.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계점은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일 수 있다(Richins, 2017).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외로움과 물질주의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물질주의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Pieters, 2013). 하지만, 물질주의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부여해서 대인 관계 간 충돌을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Shrum et al., 2013).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소외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 배제 수준을 조작 점검 문항의 점수로 사용하여 종속 변인으로 간주하고 물질주의를 독립 변인으로 간주하여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속 욕구의 매개 효과는 유의했고, 통제 욕구의 매개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인과 관계를 설정한 연구이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예: 종단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권력감을 측정하였는데, 이 결과가 권력감을 조작했을 때도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권력감이 지니는 접근 경향성은 권력감에 대한 실험 연구에 근거한다. 이에 권력감을 조작할 때도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 권력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의 통제 욕구는 사회적 배제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통제 욕구의 평균 수준은 권력감이 높은 사람보다 높았다. 권력감이 낮은 사람은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통제감을 제한하는 신호(cue)에 상대적으로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의 통제 욕구는 언제 어떻게 충족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제한점은 소속 욕구 척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의 욕구를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는 소속의 욕구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속감의 부재를 느끼지 않아도, 현재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더 나은 관계를 갖고자 할 때 소속의 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Leary et al., 2012). 추후 연구에서는 소속을 원하는 수준을 측정하여 소속 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30대 여성으로 해당 연구 결과가 다른 연령 및 성별에도 나타나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보편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Baumesiter

& Leary, 2017; Williams, 2007)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령 및 성별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험은 물질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Richins, 2017),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적 배제가 물질주의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derson, C., & Galinsky, A. D. (2006). Power, optimism, and risk-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4), 511-536.
- Anderson, C., John, O. P., & Keltner, D. (2012). The personal sense of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80*(2), 313-344.
- Asher, M., Asnaani, A., & Aderka, I. M. (2017).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nxiety disorder: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56*, 1-1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
- Baumeister, R. F., & Leary, M. R. (2017).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Interpersonal Development, 57*-89.
- Burger, J. M., & Cooper, H. M. (1979). The desirability of control. *Motivation and Emotion, 3*, 381-393.
- Campbell, C. (1987).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p. 89). Oxford: Basil Blackwell.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389-406.
- Choi, B., & Lee, J. (2019). A structural analysis of materialism, lookism, social comparis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4), 1039-1063.
- Choi, J-Y., & Oh, K. J. (2014). The effect of desire for control on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in stressful condi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209-220.
- DeWall, C. N., Maner, J. K., & Rouby, D. A.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729.
- DeWall, C. N., & Richman, S. B. (2011). Social exclusion and the desire to reconnec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1), 919-932.
- Dittmar, H. (2005). Compulsive buying—a growing concern? An examination of gender, age, and endorsement of materialistic values as predicto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6*(4), 467-491.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Gabbiadini, A., Baldissarri, C., Valtorta, R. R., Durante, F., & Mari, S. (2021). Loneliness, escapism, and identification with media characters: an exploration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underlying binge-watching tendency. *Frontiers in Psychology, 12*, 785970.
- Gelfand, L. A., Mensinger, J. L., & Tenhave, T. (2009). Mediation analysis: A retrospective snapshot of practice and more recent direction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6*(2), 153-178.

- Gerber, J., & Wheeler, L. (2009). On being rejected: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reje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5), 468-488.
- Gruenfeld, D. H., Inesi, M. E.,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Power and the objectification of social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11-127.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Iyengar, S. S., & Lepper, M. R.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95-1006.
- Jaspers, E. D., & Pieters, R. G. (2016). Materialism across the life span: An age-period-cohor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3), 451-473.
- Jiang, J., Zhang, Y., Ke, Y., Hawk, S. T., & Qiu, H. (2015). Can't buy me friendship? Peer rejection and adolescent materialism: Implicit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48-55.
- Jun, S. Y., Kim, S., & Park, H. K. (2017). The effects of anthropomorphized brand positioning on consumers' brand evalu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ion and perceived powe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6), 45-74.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im, A. (2007). An empirical analysis on social exclusion in Korea. *Korean Social Theory Association, 32*, 227-254.
- Kim, G., & Lee, J. (2019). You feel pain? so do I!: Effec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experiences on psychological threat and conformity consumption.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20*(3), 395-418.
- Kim, A.-R., Sohn, Y.-W., & Rim, H. (2014). The impact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ed to belong on the affective forecasting of social events.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17*(3), 83-94.
- Kim, Y., Seol, K., & Park, S. (2017). Materialistic valu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tudies on Korean Youth, 28*(3), 237-268.
- Kim, J., Kim, B., & Ha, M. (201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47-65.
- Lee, H. J., & Chong, Y. S. (2018). The relation between death attitude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for middle-aged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129-149.
- Lee, M., Kwon, Y., & Hyun, M. H. (2021).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4), 675-700.
- Leotti, L. A., Iyengar, S. S., & Ochsner, K. N. (2010). Born to choose: The origins and value of the need for control.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4*(10), 457-463.
- Loveland, K. E., Smeesters, D., & Mandel, N. (2010). Still preoccupied with 1995: The need to belong and preference for nostalgic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3), 393-408.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
-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8 social hierarchy: The self-reinforcing nature of power and status.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2*(1), 351-398.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1).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5), 902-919.
- Miller, S. M. (1979). Controllability and human stress: Method, evidence and the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7(4), 287-304.
- Narayanan, J., Tai, K., & Kinias, Z. (2013). Power motivates interpersonal connection following social exclu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2(2), 257-265.
- Noh, H., Rim, H., Lee, B. (2021).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and product type interaction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andmade produc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4), 1-22.
- Park, J., Choi, H., & E. M., Suh. (2012). Low interpersonal trust increases materialism. *Kore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1), 23-36.
- Park, S., & Kim, C. (2020). Effects of social exclusion and power level on preferences for high-effort products(vs. low-effort products). *Korean Journal of Marketing*, 35(2), 1-20.
- Park, S., & Kim, C. (2021). Effects of social exclusion and resultant psychological reaction on relative preference for utilitarian products(vs. hedonic products): Focusing on sense of control and regulatory focu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26(3), 49-72.
- Park, S. W., & Park, Y. (2019). Materialism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uncertainty and low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3(2), 1-21.
- Pieters, R.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4), 615-631.
- Richins, M. L. (2017). Materialism pathways: The processes that create and perpetuate materialism.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7(4), 480-499.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im, H., Noh, H., & Lee, B. (2021).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the preference of hand-written typeface products: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2(7), 95-121.
- Ruijten, P., Ham, J., & Midden, C. (2011). Social exclusion, anthropomorphism and persuasi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persuasion by an artificial social agent. *ICSR2011*.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hin, J., & Seol, K. O.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materialism of undergraduates: Self-discrepancy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8(3), 373-392.
- Shrum, L. J., Lowrey, T. M., Pandelaere, M., Ruvio, A. A., Gentina, E., Furchheim, P., Herbert, M., Hudders, L., Lens, I., Mandel, N., Nairn, A., Samper, A., Soscia, I., & Steinfield, L. (2014): Materialism: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0(17-18), 1858-1881.
- Shrum, L. J., Wong, N., Arif, F., Chugani, S. K., Gunz, A., Lowrey, T. M., Nairn, A., Pandelaere, M., Ross, S. M., Ruvio, A., Scott, K., & Sundie, J. (2013). Reconceptualizing materialism as identity goal pursuits: Functions, proces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8), 1179-1185.
- Twenge, J. M., & Park, H. (2019). The decline in adult activities among US adolescents, 1976-2016. *Child Development*, 90(2), 638-654.
- Waytz, A., Chou, E. Y., Magee, J. C., & Galinsky, A. D. (2015). Not so lonely at the top: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lonelin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30, 69-78.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You, J. H., & Seol, K. O. (2018).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aterial values scal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4(3), 385-410.

Zhang, X., & Ahn, H.. (2021). The interplay of anthropomorphism and social exclusion in branded emoticon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psychological warmth.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3(4), 124-160.

원고접수: 2023.03.14

수정접수: 2023.06.02

게재확정: 2023.06.13